



UJUNG ART CENTER
ART HALL & REHEARSAL ROOM

〈정승우 대표〉

-1978년 4월 10일 출생
-고려대 법학과 졸업
-고려대 법우대학원 석사 수료
-삼미재단 사무국
-대우조선해양 감사실
-삼미그룹 감사실
-재 유중재단 이사장
유중아트센터 대표
유중개발 감사

진정한 복합 문화·예술공간 '유중아트센터' 예술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앞장서

"가랑비에 자신도 모르게 몸이 젖듯 아직 예술을 어색해하시는 분들 또한 자연스레 젖어들게 만들고 싶습니다."

처음 방배동 도심 한복판에 갤러리 카페 '카페 드 유중(caf  de ujung)'이 문을 열었을 때 지나치던 사람들은 멈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세계 최초의 삼일옥 카페이며 공간 곳곳에 미술작품들이 걸려있는 특이점 때문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건물 2층과 3층에 음악과 미술이 한 공간에 어울려진 독특한 복합 문화 공간이 열렸다. '유중아트센터'(대표 정승우)가 바로 그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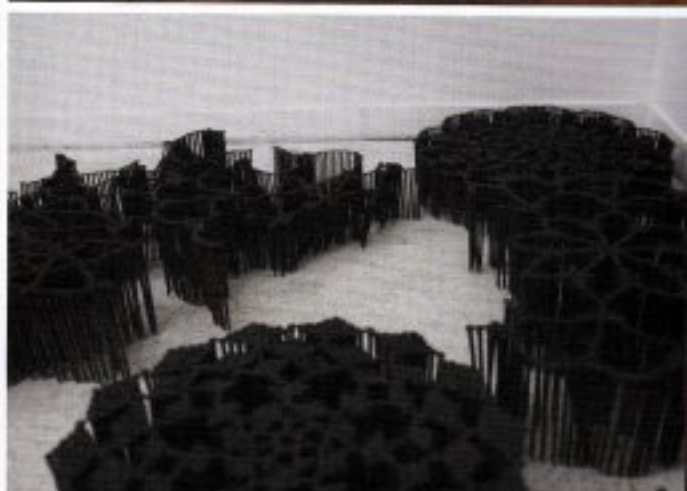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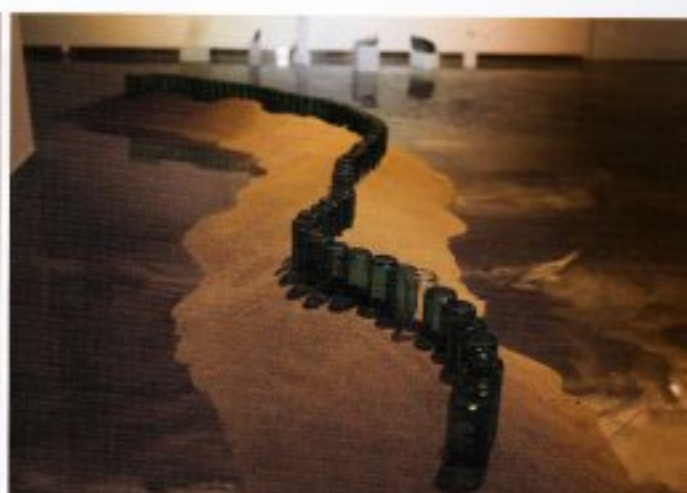
유중아트센터는 유중재단에서 후원하고 있는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2층의 경우 반은 100석 규모의 클래식 오케스트라홀이, 또 다른 반은 다양한 크기의 연습실을 갖추어 연주자

들이 다양한 장르와 악기들을 아우르며 기술과 감성을 연마하고, 연주하는데 있어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3층 역시 시각예술을 중심으로 여러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아트 갤러리와 창작스튜디오가 있다. 창작스튜디오의 경우 매년 8명의 신진 아티스트를 선정해 창작 스튜디오를 제공하고 있다. 1층에 있는 갤러리 카페 '카페 드 유중'은 매달 신진작가를 선정해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유중아트센터를 이끌고 있는 정승우 대표는 미술이나 음악이 아닌 법학을 전공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건축에도 관심이 많아 직접 아트센터의 디자인 설계에 관여하며 현장 감독까지 맡았다.

"전공인 법학을 공부하면서 클래식 음악이 심리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즐겨 들었습니다. 미술 전시 역시도 제가 즐겨하던 취미이기도 하고요, 좋아하는 것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한 공간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곳에서부터 유중아트센터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중 아트센터가 문을 열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먼저 유중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유중이라는 이름으로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제가 존경하는 외조부님의 호입니다. 아버님께서 그를 회장을 맡아 주시고 저는 유중재단 이사장과 유중아트센터 대표를 겸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설립 취지는 지·덕·체 삼위일체의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재단이 지(知), 2층과 3층에 위치한 아트센터가 덕(德)의 역할을 하고 1층에 위치한 카페가 체(體)에 해당됩니다.”

자연스럽게 융화되는 예술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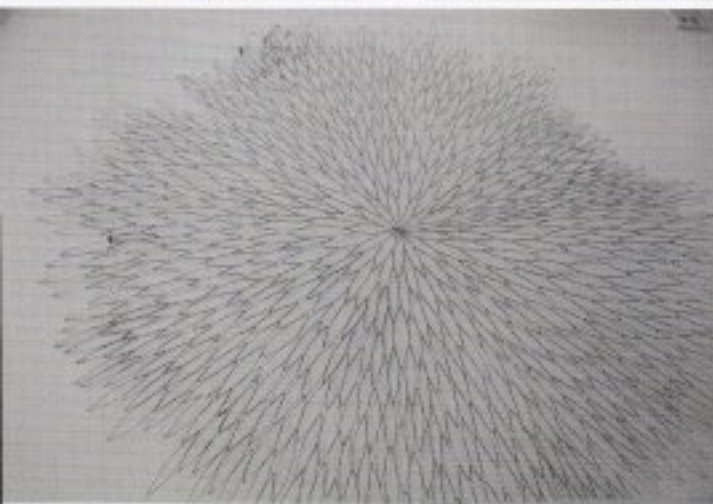
—음악과 그림이라는 조화 역시 독특합니다. 이 두 가지 예술 장르를 한 곳에 묶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최근 화두가 되는 것은 융합과 융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음식 등 여러 가지 장르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지요, 서로 다른 두 가지를 모아놓아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경쟁력 및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음악과 미술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한 공간에 있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두 가지의 예술을 이곳 아트센터에 묶게 되었지요. 지금 아트센터에 있는 음악과 미술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예술로 융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진정한 복합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 이익 추구 아닌 자선 활동에 더 깊은 애정있어

그는 지난해 모교인 고려대 인촌 기념관에서 열린 소프라노 신영옥씨의 아이티 후원 자선음악회 ‘뷰티풀 콘서트’를 후원했다. 예술을 통해 더 많은 나눔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또한 플루티스트 배재영씨가 국내외 전문 연주자들과 함께 한 ‘사랑의 플루트 콘서트’에 참여하기도 했다. 아프리카 케냐 난민들을 위해 집과 학교를 지어준 것은 물론, 한국으로 유학 온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건네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신진 예술가들에게도 아티스트 장학금 등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신진 예술가들의 발굴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만.

“갤러리의 경우 인지도가 있는 기존 작가분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고, 카페전시장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인지도가 낮은 신진 미술가들의 작품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신진 작가분들에게는 전시 장소 제공과 노출 빈도의 증가가 실질적인 도움이라고 하더군요. 카페에 계신 분들 역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즐기며 관심을 가지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진 예술가들이 많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예술과 일반인 사이 단단한 가교 역할 독독히 해내

—선진국의 경우 예술과 문화에 대한 관심과 정부 투자 역시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아직 우리나라는 경제수준



에 비해 예술 및 문화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적다는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계신지요.

“저 역시도 어느 정도 공감이가는 내용입니다. 원인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예술을 자주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접해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거부감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향수를 전혀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 처음 향수 냄새를 맡았을 때 느끼는 거부감이나 어지러움 등이 그런 경우죠. 향수를 자주 쓰는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향기롭고 좋지만 자주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부감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술 역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자주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중 아트센터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싶으신지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미술이나 음악이라는 예술 문화가 사치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클래식공연을 본다고 했을 때와 영화를 관람한다고 할 때의 인식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듯 큰 예술 공간과 일반인 사이의 가교 역할이 되어 거리감을 좁히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트센터가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된 진정한 의미의 복합문화공간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트센터가 신진 예술가들이 중진, 원로 예술가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 또한 이루고 싶은 목표입니다.”

백정원 기자 santababy1@naver.com